

살리는 부활 (행 9:1-9)

대부분 부활을 믿자, 믿어야 한다고 예기한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고 소망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믿음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부활은 천국에서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부활할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원래의 약속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확인하고 언약이 되기 바란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도 부활을 언약으로 잡는 날이다. 영혼도 부활되고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세상을 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10%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다. 또 운명같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 다 영적 문제이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약속의 피이다.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누림으로 승리하고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지금도 사단은 있고 귀신은 역사한다. 이것을 이길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뱀의 머리를 깎는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그러면 이 언약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 이 언약에 대하여 가감없이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전부 운명을 다 깎는다. 운명을 정복하고 인생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 놀라운 일이다. 미국에는 재앙이 임하고 있다. 적어도 미국 교회에는 재앙이 임하고 있다. 막을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가 기도제목이다.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꿀 것이다. 이 언약이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이다. 죽어야 하는데 살아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약속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이다.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할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살아난 것이다. 나는 원죄의 모든 저주를 깨는 너의 언약이야. 그 증거는 내가 부활했잖아. 아무도 부활한 사람 없다. 진짜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아난 사람 전부 안 죽은 것이다. 이 언약이 살아나고 살린다는 메시지이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기 바란다. 언약의 사람은 인생을 정복한다. 인생에 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문제에 놀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문제를 정복하고 문제에 잡혀 놀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면 문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이다.

1. 살리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난다. 영적으로만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도 살아난다. 놀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도 정복하고 경제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고 죽음도 정복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유는 그렇게 약속해주셨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다. 영혼도 살아날 것이고 이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삶도 살아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을 다 버리고 이 언약으로 살면 진짜 약속대로 된다는 것이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진짜로 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이 언약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 언약 안에 약속된,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에 가감없이 그대로 했다는 말이었다. 살아난다. 자기 인생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썼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수 있다.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완성해주셨다. 될 것이다. 히스기야처럼 이 언약, 약속의 피에 정직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가감없이 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에도 부활이 나타났었다. 다 마찬가지이다. 천국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되어지게 되어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에게 정복당한 모든 왕들의 망대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나라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앗수르 군대를 싹 다 죽

여버렸다. 하루밤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여주신 것이다. 이유는 한개 딱 있다. 히스기야는 이 언약, 약속의 피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앗수르 왕도 죽었다. 굉장히 메시지가있고 의미있게 죽여버렸다. 18만 5천명중에 한명 왕 남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신에게 절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들어와서 죽여버렸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너의 신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왕이라도 소용없다. 다 죽는다는 것이 메시지이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잡아야 할 내용은 히스기야 왕은 전쟁 안했다. 유다 군대중에 아무도 앗수르 군대 근처도 못 갔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 하나 못 쏘다. 그런데 왕까지 다 죽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이 약속이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2등이지 1등이 아니다.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싸우지 않고 언약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싸워서 왕까지 다 죽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 수많은 예가 기록되어 있다. 전부 언약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이다. 너도 히스기야처럼 내 언약에 정직한다는 메시지이다. 시대적인 메시지이다. 이 언약의 피는 정말로 싸우지 않고 다 이길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나라, 큰 문제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오직 내 언약에 정직하여 가감하지 말고 오직 해라. 그렇게 생명걸고 정직하게 내 언약을 따르라는 말이었다. 우리는 방법이나 수단을 우리도 모르게 쓸때도 있다. 그런데 언약에 정직한 삶을 살면 유일한 응답을 받는다. 아무도 앗수르를 이기지 못하고 왕들은 다 노예가 되거나 죽었는데, 그런데 작은 유다 나라가 이긴 것이다. 그것도 참 한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하나 안 쓰고 이겼다. 거기에 왕도 죽었다. 유일성의 응답이고 재창조의 역사이다. 히스기야는 그 지역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었다. 흐름을 바꾸어 버렸다. 앗수르가 그 지역 시대의 흐름이었다. 힘이 있는 나라를 따라가지 않을수 없다. 앗수르가 흐름이었는데, 깨버렸다. 그 흐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는 것이다.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가문의 흐름을 뒤집어서 전부 구원을 시키는 것이다. 증인이다.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저런 교회의 흐름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아무말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뒤집도록 만들어버리는데, 내가 이 언약에 헌신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 저주의 모든 흐름, 사단의 흐름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을, 근원을 이미 받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된 적이 교회사에는 없는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다. 하나님에게 가치있는 것은 복음 뿐이다. 그 약속의 피는 당신의 피이고 그것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한다. 오늘 해도 그것 때문에 뜨는 것이다. 그것이 이 약속의 피이다. 이것을 잡고 말없이 전쟁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근본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언약의 피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이 언약에 정직하냐, 아니면 무엇을 가감하냐에 달려 있다. 그 근본이 된 사람에게 24의 축복, 미국과 남미의 망대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왜 그럴것인가? 이유는 너무나 뻥하다. 왜 망대가 되게 하시겠는가? 왜 미국에 망대같이 우뚝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망대같이 우뚝선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겠냐는 것이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하나 뿐이다. 복음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다. 이 언약의 피가 아니면 사단의 머리를 깎 수 없다. 원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깎아야 한다. 사단이 원인이라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 전쟁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피를 이해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저주에서 건지는 일, 하나 있다. 약속의 피. 이 일을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증거가 부활이다. 하면 된다는 증거가 부활이다. 해봐라. 내가 해줄 것이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린다. 그 때만 살리는게 아니라 오늘도 살린다.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육신도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달려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진짜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 정말로 이 약속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깊이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2. 인생 부활한 바울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부활이 온다. 대부분 믿고 있지 아직 만났다는 느낌이 없다. 너 복음을 가졌나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너 그리스도를 믿나라고 하면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믿으면 가진것인데, 가졌냐고 하면 빨리 대답이 안 나온다. 언약을 가진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누리고 응답받아가면서 깨달아지도록 해야 한다. 믿는 것 귀하다.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것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그리고 증인되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된다는 증거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살아나신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살리신다. 앞으로 살아날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당연히 살린다. 로마서 8장 1-2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피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방되었는가? 죽음에서 진짜 해방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해방되었는가? 인생에서 해방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다. 언약이든 되는데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해방이 안된다. 해방은 정복을 의미한다. 인생 정복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생활한 것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문제는 피해가면서 산다. 문제가 인생에 정면 도전할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다. 믿기는 믿는다. 하나님 자녀이다. 복음도 전한다. 교회가서 헌신도 한다. 헌금도 한다. 그런데 내 인생을 정복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한다.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부모 때문이다 경제 때문이다. 아니다. 사단 때문이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답 나는 것 아니다. 하루만에 답 나 버린다면 이미 마음에서 영적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원인이 사단인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이면 원죄 이전에 문제 없었다. 원죄가 왜 일어났는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사단에게 당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내 아들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창 3:15이다. 하나님이 죄 진 아담을 죽이는게 아니라 사단을 죽인다. 눈이 열려 한다. 그러면 언약으로 승부를 본다. 눈 안 열리면 할수 없이 다른 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것이다. 응답은 있을 수 있다. 옆집 사람보다 잘 살수 있다. 그러나 절대 정복이라는 단어는 말 못할 것이다. 그리고 흐름을 바꾼다든지 그런거 안 일어난다. 잘 살수 있다. 잘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래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만족을 하겠냐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정복하려고. 물론 용서였다. 물론 답이다. 그것가지고 해결한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정복해서 뒤집어서 증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할수 있겠냐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수 있는가? 복음이 뭔지 알면 즉시로 하나님 나는 할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 복음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한다. 진짜 알아야 하고 깊이 알아야 한다. 하나 뿐이다. 복음을 바로 알면 응답 받는다. 복음이 바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응답이 지속된다면 머리 나빠도 괜찮다. 좋은 학교 졸업 안해도 괜찮다. 사업의 수단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 사업의 수단이 죽은 사람은 문제에 봉착하면 안된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문제에 봉착하면 바뀌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성경이다. 진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부활이다. 죽음에 막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어디 있는가? 최고로 어려운 문제, 죽음도 된다는 것이 바로 내 피라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이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답나는 장면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는 말인가? 사도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된 후 순간적으로 뒤집어 지고 그의 인생은 재창조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마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말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결론적으로 한 말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 때 내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말이다. 부활한 것이다. 인생이. 그리고 그는 인간 중에 최고가 되었다. 하나님 눈에 사도바울보다 더 귀중한 인간 없다. 당대에 최고의 피조물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없었다. 문화를 새로 만들었다. 놀란다. 그 때는 헬라, 유대 문화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문화가 사도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

예 해방과 같은 역사적인 흐름이 이 사도바울의 복음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 그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심에 있었다. 바울이 잘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잡은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 사도바울의 16장을 보면 그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데 자주 막히는 것이었다. 그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다. 그것이 유럽이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 운동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다. 그 이후에 유럽은 아시아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때 영국과 독일은 최고의 복음 국가였다. 복음 뿐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반드시 부강해진다. 힘이 있게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좌파들이 많아서 엉뚱한 소리들이 많이 한다. 좌파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일단 탈락이다.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이다. 온 지구에 영국령이 있으니까 해가 안진다. 그 당시에 유명한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다. 이 분은 자기가 정치하는 옆자리에 항상 성경을 놓고 했다. 말씀 따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정직한 여성이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 모든 일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신 것이다.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회복하려는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붙이신다. 그냥 살릴 사람만 아니라 이 운동을 계속할 제자를 붙인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계속 확산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 그 중심에 사도바울이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히스기야였다. 그들은 역사를 새로 썼다. 그 지역에 흐름을 바꾸었다.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는 역사가 사도바울이다. 그는 세상의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니다. 성경의 영적인 역사에도 그는 주인공이었다. 그의 복음 이해가 우리의 복음 이해에 기준이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그의 전도현장에서 나타난 전도가 성경적 전도운동의 표본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그 뿐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였다.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다. 바울은 혼자였지만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언약에 정직했던 히스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언약에 정직했던 바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적인 약속이다. 니가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영적인 약속이다.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이 언약에 정직한 사람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은 양다리. 한 개로 끝내야 한다. 우리도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도 남미 역사를 새로 쓰고 그 흐름을 바꿀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 있는 귀신 문화를 바꾸고 미국 교회의 삼 시대의 문화를 바꿀수 있을 것인가? 미국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그것을 통해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바꾸는 출발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는 할수 있어야 한다. 되고 안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생각도 없다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는 해야 한다. 답나기 바란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약속의 피를 누리면 된다. 그러면 뱀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 인생은 정말 작품이다. 시대를 바꿀수 있다. 미국 교회의 흐름만 바꾸면 미국의 흐름을 바꿀수 있다. 왜 그런가? 미국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없이 언약 잡고 미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대학이나 각종 자리에 있는 제자가 울 것이다. 이 기도는 해야 한다. 부활절이 되어서 한번 교회에 가보자 하고 왔는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래서 인생을 살리는 것이다. 응답을 받고 싶지 않은가? 한번 받아서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응답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받아야 한다. 이런 인생이 안되면 인생이 회복 안되고 정복 안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된다. 어디서 마음이 통하겠는가? 그의 언약, 약속의 피 안에서. 부활절 귀한 날인데, 최고의 축복이 있기 바란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끝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 안 주신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다. 그 귀한 것이 진짜로 성경적인 복음이 어느날 나타났다. 그 복음을 준 사람은 하나님 눈에 최고로 귀한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다.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언약에 정직하면 히스기야처럼 된다. 그리고 사도바울같은 인생을 살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바란다.